



한국 고대사체계의 바른 이해를 위한 길라잡이 - 윤내현, 『한국 고대사 신론』, 만권당, 2017

저자 (Authors)	이도상
출처 (Source)	역사와융합 1(1) , 2017.12, 175-179 (5 pages)
발행처 (Publisher)	바른역사학술원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7298628
APA Style	이도상 (2017). 한국 고대사체계의 바른 이해를 위한 길라잡이. 역사와융합, 1(1), 175-179.
이용정보 (Accessed)	121.162.211.*** 2018/02/09 16:29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역사와융합』제1집(2017.12)

【서평】

한국 고대사체계의 바른 이해를 위한 길라잡이

윤내현, 『한국 고대사 신문』, 만권당, 2017.

이 도 상(전 원광대)

교육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교육현상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교육 현장에서 인성교육이 사라지고 오히려 이념교육으로 대치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성교육에 실패하면 이 나라의 선진국 진입은 요원해질 뿐만 아니라 미래가 암담해질 수밖에 없다. 인성교육은 근본에 대한 바른 인식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다음 세 가지 담론을 통해 우리 교육 현상을 들여다보면서 왜 인성교육 과정에서 역사교육이 강조돼야 하는가, 그리고 윤내현 교수가 쓴 『한국 고대사 신문』을 읽어야만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 자신은 근본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는 모든 사고의 출발점이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둘째, 한국 고대사는 사실이 바르게 정리되어 있는가? 이는 우리들의 올바른 자아인식을 위해 역사학계가 피해서는 안 되는 과제일 것이다. 셋째, 우리의 역사교육은 그 본질에 충실하고 있는가? 이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이자 국가의 미래를 걱정해야 할 교육계의 절실한 본분일 것이다.

윤내현 교수의 『한국 고대사 신문』은 위 세 가지 담론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담

론에 대한 고민을 체계적으로 풀어나가는데 매우 유용한 해답을 제공하고 있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한국 고대사가 바르게 밝혀지지 못했고, 오류가 산재함이 지적돼 왔음을 전제로 “한국 고대사에 존재하는 오류가 사대사관과 식민사관의 영향 아래서 범해졌고, 그것을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했다면 한국의 역사학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자책하면서 한국 고대사 체계가 완전히 수정돼야 함을 강조한다.

난해한 한국 고대사 체계를 독자들은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지 망설여지겠지만 문제의식을 가지고 요령 있게 접근하면 의외로 이해가 쉽다. 먼저 한국 고대사 체계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한국 고대사에 대한 인식과 해석은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첫 번째 논란은 패수 위치와 고대사 강역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이다. 두 번째 논란은 한사군의 위치, 특히 그 중에서도 낙랑군의 위치에 대한 시각차이다. 세 번째 논란은 기자와 위만과 그들의 뒤를 이은 한사군 역사에 대한 인식의 차이이다.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역사학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일본의 국수주의적 역사왜곡이나 중국의 동북 공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개인적으로도 이에 대한 인식이 바르게 확립될 경우 한국 고대사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확립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역사학계의 한국 고대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두 편으로 완강히 갈려 있어 거의 합의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하나는 한국 고대사의 강역을 지금의 남북한지역으로 한정하여 한국 고대 문명은 중국에서 갈라진 종속문명이며 만주에서 발견되는 유적들은 우리와 무관하다고 외면한다. 더욱이 고조선(고대 조선)은 신화일 뿐 실재한 역사가 아니라는 관점이다. 이러한 한국 고대사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의 역사학자들이 지지한다 해서 주류 또는 강단사학이라 부르며 통설이라 강조한다. 다른 하나는 우리 문명은 중국 문명과 다른 독자적인 문명이었으며 그 속에서 성립한 고조선은 실재한 역사이자 지금의 만주 대

록에서 전개된 역사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강단사학 쪽에서는 ‘젊은 역사학자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소장 학자들이 전면에서 나서서 민족사학이라 불리는 이 견해에 대해 ‘재야사학’ 또는 ‘사이비 역사학’이라 부르며 과격한 국수주의적 환상에 빠진 기괴한 소비니즘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들의 논지는 소위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일부 재야사학자들은 고대에 우리 민족이 넓은 영토를 지배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달콤하고 유혹적일지 모르나 식민사학의 기반인 지리적 결정론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난의 이면에는 조선은 예로부터 중국 문화의 은혜를 입었고, 그 침략을 받아서 복속한 우리는 영토가 협소하고 인민이 적어서 중국과 일본에 대항해 독립국을 형성할 실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고가 전제돼 있으며 이를 실증주의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고 있다. 광복 72주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의 고대사를 보는 시각과 해석이 이처럼 강단사학과 재야사학이라는 이름으로 엇갈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상을 어찌 해야 하는가?

여기서 옳고 그름의 입장을 떠나서 독자들의 올바른 판단에 필요하리라 여겨지는 몇 가지 저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제1장 2절의 ‘한반도 북부설의 비판’을 보면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주장했던 고조선의 위치가 평양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유적과 유물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역으로 그것들이 고조선의 위치가 평양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설명한다. 지금까지 이어진 한국 고대사의 주요 논지는 고조선이 평양에 있었는데 위만조선이 그 뒤를 이었고 한 무제가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자리에 한사군을 설치했다고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위만조선과 한사군의 위치는 자연히 고조선이 있었던 지금의 평양으로 비정되며 한국 고대사는 중국의 식민지로부터 출발한 역사가 되고 만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는 유적으로 낙랑대운장(樂浪大尹章)이 찍힌 봉니(封泥), 화천(貨泉)이라는 화폐, 대진원강(大晉元康)이 새겨진 기와, 점제평산군신사비(粘制平山君神祠碑), 나무 도장과 부조예군(夫祖歲君)의 은 도장, 효문묘동중(孝

文廟同種) 등이 근거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저자는 위 사례들의 제작 시기와 서체의 형태, 관직의 명칭 등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가며 고조선·위만조선·한사군 위치가 논리적으로 한반도 북부에 있을 수 없음을 조목조목 밝히고 있다. 북한의 사회과학원도 젊은 역사학자들이 예로 들고 있는 평양지역에서 출토된 유적들은 한사군이 평양에 위치하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들이며 한사군 낙랑군이 무려 420여 년 동안 평양 일대에서 식민통치를 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궤변이라고 말한다. 확실한 것은 평양지역의 유적들은 대부분 동한시대 이후의 유적들이며 서한시대 유적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어지는 2장 ‘고조선의 도읍 천이고’, 3장 ‘고조선의 사회 성격’ 4장 ‘기자신고’, 5장 ‘위만조선의 재인식’, 6장 ‘한사군의 낙랑군과 평양의 낙랑’ 등은 판단의 어려움 속에서 번민해 온 독자들이 한국 고대사 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풀고 역사적 진실로 다가가는 길로 안내하고 있다. 즉, 고대에 기자 위만 한사군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역사적 사건이 전개된 곳을 흐르던 강이 패수이다. 따라서 패수의 위치를 정확히 모르면 한국 고대사체계를 정확히 말할 수 없다. 바꿔 말하면 현재 역사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한국 고대사에 대한 인식상의 세 가지 논란을 풀어나가는 첫 걸음이 바로 패수의 위치를 확인하는 작업인 것이다. 이 책은 바로 독자들을 패수로 안내하면서 패수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역사적 사건들을 논리 정연하게 풀어가고 있다. 독자들의 한국 고대사체계 정립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저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패수 주변에서 전개되었던 역사 이야기를 더 이상 들려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지금부터는 우리 고대사의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독자들이 스스로 찾아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무슨 사료를 찾아 어디서부터 읽어나가야 할지 해맬 수밖에 없는 독자들에게 이에 대한 지침을 정리해 주고 있는 이 책이 고맙고 소중하다는 말 외에 달리 적당한 표현이 없겠다.

특히 역사를 전공하는 이들에게 이 책은 맨 먼저 숙독해야 할 지침서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싶다. 왜냐하면 역사란 현재의 시각에서 과거를 번뇌하면서 미래를 엮어나가는 학문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정확한 사실의 인식에 기초해야 올바른 역사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가 이익과 결부시킨 중국과 일본의 공세적 역사왜곡이 심각한데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학계, 방관하고 있는 정부, 무관심한 국민의 미흡한 대응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에 대한 정확한 본질 인식과 논리적 대응을 위해서도 한국 고대사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절실하다는 차원에서 이 책이 널리 읽혀지기를 기대하고 싶다.